

서평자의 자질은 전문성, 개성, 자의식...



조은영 기자



저는 서평은 책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책에 항복하죠.(웃음)아직까지 책에 대해서 어떤 외경 같은 것이 있어요. 일단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평자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제대로 읽어야, 자기 검열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서평은 참 흔하다.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 쓴 서평은 드물다. 서평은 넓게 해석하면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발언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데리다 식으로 말하자면 서평은 텍스트 속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텍스트를 끄집어내는 일 혹은 텍스트를 해체하는 일이다. 이 말에는 서평이 그만큼 어려우면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서평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리브로 웹진 <부커스>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정 기자(32)이고 한 사람은 월간 북매거진 <텍스트>에서 일하는 조은영 기자(27)다. 두 사람은 서평을 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자가 소속한 매체가 대항적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다르다. 한 사람은 온라인, 한 사람은 페이퍼다.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다. 그들은 어떤 연유로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은 직업인 서평전문 기자가 된 것일까.

강정. 대학을 졸업하고 시를 쓰면서 아르바이트로 서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본업이 되어버렸어요(강정 기자는 시집을 낸 주목받는 시인이기도 하다).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서평을 쓰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온라인 매체라는 환경의 특성이면서 제약이기도 하겠는데, 우선 서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생산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매체 환경이 요구하는 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평자의 개성을 보고 싶어 하는 독자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관을 배제하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저는 95학번이니까, 책보다는 영상이 편한 쪽이예요. 처음엔 영화 관련 잡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텍스트> 편집장인 김용필 선배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하게 됐지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책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상황이에요. 엔터테인먼트, 게임, 레저 등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능하면 서평의 존재의미를 물으면서 작업을 하고자 노력해요. 책의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담론의 구조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이 시대가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런 시대일수록 서평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지금까지의 서평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왜곡된 시장구조의 잉여 산물 지양해야



책이 안 읽히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위기라고 바라보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생산적인 논의들이 경직될 우려가 있거든요. 서평은 지금까지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서평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관행적인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기자



않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서평이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왜곡된 시장구조에 기생한다는 혹독한 평도 있었다. 그러면서 서평이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절실한 물음이 있을 때 서평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했다.

강정. 책이 안 읽히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위기라고 바라보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생산적인 논의들이 경직될 우려가 있거든요. 서평은 지금까지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서평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관행적인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영. 저도 서평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재생산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평이 '책을 읽어라'고 강요하는 쪽으로만 나가서는 곤란하죠. 서평이 문화사회적 가치들과 결합해 나가면서 유연한 시선을 확보해 나가면 좋겠어요.

이들의 화제는 서평을 쓸 때의 형식과 스타일의 문제로 넘어갔다.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와 책날개 및 뒤표지 글을 조악하게 베낀 서평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서평도 분명히 독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시나 소설처럼 문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평자의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정. 독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솔직한 감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민다는 것은 그 책이 담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시를 썼던 경험이 서평을 쓸 때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주관적인 쪽으로만 문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평을 쓸 때는 서평 나름의 자의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서평은 나의 주관을 책에 실어서, 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걸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와는 아주 다릅니다.

조은영. 일간지 같은 언론 매체에 의해 굳어진 서평의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해요. 책을 바라보는 데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간지의 서평 기사를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평을 쓸 때 생산자로서의 글쓰기의 고통은 덜한 편이에요. 다만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인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죠. 저는 서평은 감상이 아니고 설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평자의 감상 또한 논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어렵게 같은 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우리 출판계에서는 귀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전문 서평 기자들이다. 두 사람 모두 책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실력과 매서운 눈썰미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평 매체에 몸담은 지는 강정 기자가 2년, 조은영 기자가 1년 6개월 정도. 이들은 서평 전문기자가 부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서평이 비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강정. 서평 전문기자가 부재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공동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990년대 이후 출판평론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것은 왜곡된 시장구조가 만들어낸 출판잉여의 산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영.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인데 출판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수준이 천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만 해도 전문기자들이 넘쳐나는데, 출판전문 기자, 서평전문 기자는 아직도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고 소용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것의 존재의미를 사회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동기 감응일까, 아니면 동병상련의 정일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모른다. 기자는 두 사람에게서 서평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자 역시 서평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다.



강정.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책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해요. 애정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이 생기거든요.

조은영. 저는 서평은 책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책에 항복하죠.(웃음) 아직까지 책에 대해서 어떤 외경 같은 것이 있어요. 일단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평자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제대로 읽어야, 자기 검열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책을 읽는 이들은 최근에 읽은 책 중 독자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 한 권씩을 추천해줬다. 조은영 기자는 《서준식의 생각》을 추천하면서 지식과 글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 있는 깨우침을 준 책이라고 말했다. 강정 기자는 고미숙의 《열하일기》를 추천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꿰고 있는 박지원을 새롭게 읽어낸 독특한 관점이 담긴 고전이라고 말했다.

한 기자의 침언처럼 서평은 길을 찾아갈 때 지침이 되어주는 가로등 같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로등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은 길을 찾지 않고 가로등 아래에 머물게 된다. 서평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보다는 책과 빛을 나눠 가질 때 독자들이 믿음을 갖고 서평을 읽게 될 것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